

양파값 '상승 심각' 무 출하원활 '안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하량 감소로 양파가격 kg당 평년비 39% ↑

노지봄무 이어 고랭지무도 생산 증가 전망...애호박도 작황 '호황'

오랜 가뭄과 폭염으로 양파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출하량까지 줄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산지출하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출하량 감소로 양파 가격이 '상승 심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한 양파 주간 도매가격은 kg당 1183원으로 평년 850원대비 39.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는 노지봄무 산지출하가 원활한 가운데 수급조절 매뉴얼상 한

정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노지봄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8만7000t이 이달 하순까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랭지무도 전년보다 18.7% 증가한 5만4000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고랭지무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파종이 90% 가량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 주간도매 가격은 개당 1241원으로 평년 1299원 대비 4.5% 내린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8월부터 고랭지무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은 더욱 안정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애호박은 출하면적이 전년과 비슷하지만 작황 호전으로 생산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 증가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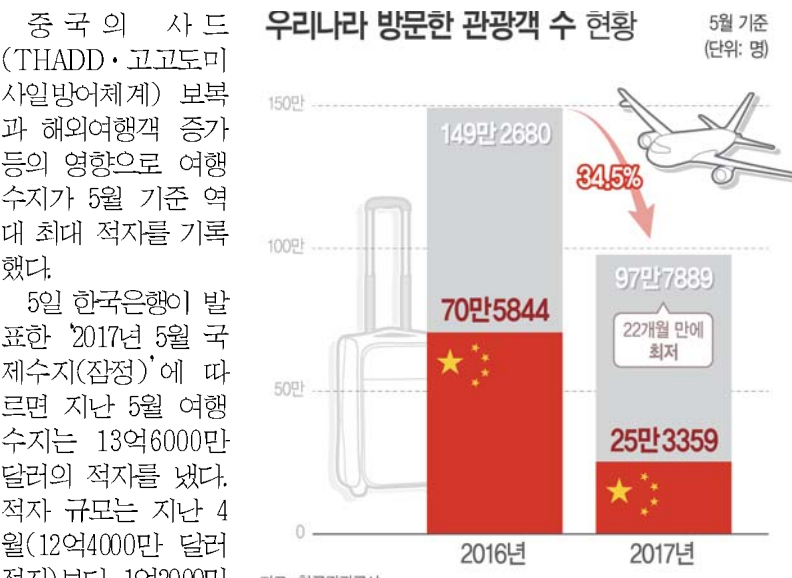
청양고추도 출하량은 원활하지만 잠미철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음식점 등에서 매운 음식 부재료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열무는 무더운 날씨로 생육이 부진한 반면 음식점 별 수요가 꾸준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T관계자는 "업체류는 출하불량이 꾸준하고 파채류는 일조량과 기온상승으로 공급불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행수지 '적자' 22개월만에 역대 최대 인바운드 여행사·호텔업계 '가시밭길'



전년 동월(2억5000만 달러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5배 가량 확대됐다.

5월 여행수지는 2015년 7월(14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이며,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수출수지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165만7000명)대비 21% 늘어났지만 입국자수가 9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49만3000명)대비 34.5% 감소했다. 입국자수 97만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당국의 한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5배 가량 확대됐다.

5월 여행수지는 2015년 7월(14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이며,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수출수지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165만7000명)대비 21% 늘어났지만 입국자수가 9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49만3000명)대비 34.5% 감소했다. 입국자수 97만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당국의 한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5배 가량 확대됐다.

5월 여행수지는 2015년 7월(14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이며,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수출수지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165만7000명)대비 21% 늘어났지만 입국자수가 9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49만3000명)대비 34.5% 감소했다. 입국자수 97만

5월 입국자수 97만8000명...2015년 7월 메르스 이후 첫 100만명 미달 인바운드 여행사 개점 휴업·신생 호텔 객실 점유율 10-20% 그쳐

800명은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내 여행객이 급감했던 지난 2015년 7월(63만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에 미달한 것이다.

중국인 입국자수가 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70만8000명)에 비해 64.1% 급감했다. 전월에 비해선 11.2% 늘어난 것이다. 지난 3월과 4월의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인 입국자수 성장률은 각각 -40% - 66.6%였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은 무려 77% 감소했다.

한반도 정세 불안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 역시 2개월 연속 역성장해 15만9379명으로 10.8% 줄었다. 국적별 방문객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대만(+13.0%), 홍콩(-0.3%), 태국(-10.5%), 일본(-10.8%), 중국(-64.1%)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인바운드 관광 연관업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새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내국인 출국자는 200만383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1%나 늘어 3개월 연속 2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장 11일까지 쉬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있어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힘을 더했다. 장기간 휴가가 가능해 유럽, 남태평양 등 장거리 여행객도 늘었고 동남아, 일본 등 단거리 여행객도 크게 증가했다.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전체 사업에서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바운드 부문은 타격이 있었다"면서 "과거에도 중소기업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수익은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좋지 않았다. 이번 위기를 저가 중심 관광에서 탈피하고 제대로 된 '관광 한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태제과 빠세, 3개월 만에 300만 봉지 팔려

입소문 타고 해물스낵 6위 기록

해태제과의 '빠세(빠삭한 새우칩)'가 히트제품 대열에 합류했다.

해태제과는 5일 "지난 4월 출시한 '빠세'가 출시 3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봉지를 돌파했다"며 "해물 맛 스낵 시장을 겨냥한 3인 4각의 도전이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빠세의 6월 기준 누적 매출은 25억원이다.

제과업체의 히트제품 기준은 통상 월 10억원 수준이다. 2~3초에 한 봉지씩 팔려야 가능하다.

궤적한 장수제품이 버티고 있는 해물스낵시장에서 단 2달만에 6위에 오른 것(5월 낱승 기준)도 주목된다. 해물스낵은 전체 스낵시장에서 약 15%를 차지하며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빠세 판매량은 스낵 성수기에 들어서며 현 추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SNS 빠세 인증샷 대부분이 맥주와 즐기는 사진일 정도로 진한 새우맛과 맥주의 궁합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제된 시장에서 새로운 새우 맛 스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위에 에어컨구매 급증...온라인가전 판매 45.6%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모바일거래 60% 넘어

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29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45.6%, 음·식료품이 38.8%나 뛰었다.

이로 인해 전체 거래액에서 가전·전자·통신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4%포인트, 음·식료품은 1.7%포인트 늘었다.

손은라 통계청 서비스업통과과장은 "기온이 평년에 비해 1.5℃ 높다 보니 냉방용품이 많이 팔렸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동해 공기청정기나 의류건조기가 많이 팔렸다"며 "인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PB상품 간편성이 출시되다보

니 음·식료품의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8244억원으로 37.9%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0.7%를 차지한다. 2015년엔 45.6%, 2016년 52.7%였다.

모바일 쇼핑을 통한 거래가 많은 상품군은 아동·유아용품(76.2%), 신발(74.5%), 음·식료품(73.9%), 가방(72.1%) 등이다.

1년 전과 비교해 가방(22.2%포인트), 가구(17.4%포인트), 의복(12.4%포인트), 신발(12.3%포인트), 아동·유아용품(12.0%포인트),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11.1%포인트), 음·식료품(10.1%포인트) 등에서 크게 확대됐다.

차보험 첫 가입, 운전경력으로 보험료 절약가능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이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안내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가입경력요율)를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운전경력이 1년은 지나야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진다. 만약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한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6%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2015. 09. 17 - 2015. 10. 31 축능원

시력보호에도 베리굿 항노화에도 베리굿

베리굿

berry good

대한민국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지구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이 키웁니다.

주문문의

담양블루베리향토사업단
(061) 381-7579